

“AI 시대 국가통계·데이터 전략 머리 맞댄다”... 국가데이터처 출범 후 첫 통계·데이터 포럼 개최

- 국가데이터처, 한국통계학회·한국경제학회·한국조사연구학회와 공동으로 제15회 국가통계·데이터발전포럼(「데이터로 설계하는 대한민국의 내일」) 개최
- 민·관·학 전문가 350명 결집... ‘데이터 칸막이’ 해소 방안 모색
- 안형준 처장, “국민이 믿고 쉽게 쓸 수 있는 국가통계·데이터 체계 구축” 강조

AI(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여 민·관·학 전문가가 국가통계와 데이터의 미래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는 5월 14일(목) 더플라자 호텔 서울에서 한국통계학회(회장 강기훈), 한국경제학회(회장 강성진), 한국조사연구학회(회장 이윤석)와 함께 「제15회 국가통계·데이터발전포럼」을 개최하였다.

지난해 10월 통계청에서 격상된 국가데이터처는 국가통계와 데이터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기관으로서, 데이터가 국가 정책의 근간이 되는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이번 포럼은 국가데이터처 격상 이후 처음 열리는 국가 차원의 통계·데이터 포럼으로, 기존 국가통계 중심의 논의를 데이터 전 영역으로 확대하였다.

「국가통계·데이터발전포럼」은 국가통계·데이터의 생산자와 이용자가 한자리에 모여 국가통계·데이터 발전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국가데이터처의 대표 포럼으로, 이날 행사에는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 80여 개 기관 3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제15회 국가통계·데이터발전포럼은 「데이터로 설계하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가데이터처의 새로운 역할과 데이터 거버넌스의 미래, AI(인공지능) 시대를 뒷받침하는 국가통계·데이터 발전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 AI(인공지능) 시대 국가 경쟁력은 데이터... 거버넌스 개편 방향 모색 >

오전 행사에서는 개회식 및 국가데이터처 전체 세션이 이루어졌으며, 국가데이터처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생중계가 함께 진행되었다.

개회식에서는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 강기훈 한국통계학회장, 강성진 한국경제학회장, 이윤석 한국조사연구학회장이 개회사 및 환영사를 전했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류근관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전 통계청장)는 “경제성장, 청년, 지역, 인구, 주택 등 상호 연결된 국정현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가 데이터를 상호 연계하여 통합 관리하여야 할 것” 이라고 제언했다.

기조연설 후에는 국가데이터처 주관 「국가데이터처 격상과 데이터 거버넌스」 세션이 진행되었다. 해당 세션에서는 국가데이터처 격상의 의미와 국가데이터기본법, 데이터 거버넌스, 국가데이터 허브 기능 강화 전략, AI(인공지능) 친화적 국가 메타데이터 구축 방안 등 국가데이터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및 거버넌스의 방향을 논의하였다.

< 경제총조사부터 AI(인공지능) 에이전트까지, 데이터 혁신 사례 공유 >

오후 전문 세션에서는 경제총조사, 데이터 통합·활용, AI(인공지능)와 사회조사 등 통계·데이터 분야 최신 현안을 3개 세션으로 나누어 심층 논의하였다.

국가데이터처와 한국경제학회는 「경제를 읽고, 내일을 설계하다: 경제총조사」 세션을 공동 개최하였다. 참석자들은 올해 6월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앞두고 경제총조사의 의의 및 추진 방향, 일본 경제총조사의 혁신 사례, 국가통계 변천과 경제총조사 데이터의 학술적·정책적 가치를 논의하였다.

한국통계학회는 「국가데이터 시대의 공식통계: 데이터 통합, 활용, 그리고 안전한 연계」 세션 개최를 주관하였다. 해당 세션에서는 빅데이터 결합을 통한 정책 효과 분석, AI(인공지능) 시대 조사데이터 통합 방안, 안전한 데이터 연계 플랫폼 운영 모델 및 행정자료 기반 주거비지수 작성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한국조사연구학회는 「AI 에이전트와 사회조사」 세션 개최를 주관하였다. 참석자들은 LLM(대형언어모델)이 조사연구에 미치는 영향, AI(인공지능) 에이전트 기반 사회현상 연구 및 LLM(대형언어모델)을 활용한 텍스트 분석 등 AI(인공지능)와 데이터를 결합한 혁신적 연구 방향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세션별 발표 자료는 제15회 국가통계·데이터발전포럼 홈페이지(modsforum.kr)에서 확인 가능

< 국가데이터처, “국민이 믿고 쉽게 쓸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할 것” >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AI(인공지능)시대 국가 경쟁력은 국가통계와 데이터를 얼마나 잘 연결·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국가데이터처가 이를 연결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 라고 하면서,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국민이 믿을 수 있고, 쉽게 쓸 수 있는 국가통계 및 데이터 제공을 확대해 나가겠다” 고 강조하였다.

담당 부서	통계정책국 통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송준행 (042-481-2451)
		담당자	사무관	조성현 (042-481-2426)
	국가데이터기획협력관 국가데이터기획협력과	책임자	과 장	김지은 (042-481-6959)
		담당자	사무관	김창휘 (042-481-3616)
	경제통계국 경제총조사과	책임자	과 장	김혜련 (042-481-3770)
		담당자	사무관	이정훈 (042-481-3792)



데이터로 설계하는 **대한민국의 내일**

제15회
국가통계·데이터발전포럼
The 15th National Statistics and Data Development Forum

2026. 5. 14.(목), 10:00~17:00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

주관 : 국가데이터처, 한국통계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조사연구학회

세부 프로그램

구분		주요내용
10:00~10:15	개회사	안형준 처장(국가데이터처)
10:15~10:30	환영사	강기훈 회장(한국통계학회), 강성진 회장(한국경제학회), 이운석 회장(한국조사연구학회)
10:30~11:00	기조연설	국가데이터처 : 빅데이터와 AI시대의 국가데이터 통합본부 류근관 명예교수(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전)통계청장)
11:00~12:30 그랜드볼룸	세션 1	국가데이터처 격상과 데이터 거버넌스 (좌장 : 류근관 명예교수(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 및 의의 김지은 과장(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기획협력과)
		국가데이터 허브 기능 강화 로드맵 김수영 과장(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허브정책과)
		AI 친화적 국가 메타데이터 구축 방안 이선희 과장(국가데이터처 인공지능통계혁신과)
		토론 : 권순일 부사장(업스데이터), 신신애 본부장(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2:30~14:00	오찬(그랜드볼룸)	
14:00~16:30 그랜드볼룸	세션 2	경제를 읽고, 내일을 설계하다 : 경제총조사 (좌장 : 전현배 교수(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경제총조사의 의의 및 추진방향 김혜련 과장(국가데이터처 경제총조사과)
		국가통계의 변천과 경제총조사 데이터의 학술적 정책적 가치 홍석철 교수(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국가데이터처 미시경제데이터의 정책의사결정 활용도 제고 방향 장우현 소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일본의 경제총조사 추진전략 및 방향 Nanami Suzuki(일본 총무성 통계국)
토론 : 김덕파 교수(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정현준 연구위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 강영관 팀장(한국은행 국민경제기획팀) 유민희 연구위원(한국경제인협회 미래전략팀)		
14:00~15:30 다이아몬드홀	세션 3-1	국가데이터 시대의 공식통계 : 데이터 통합, 활용, 그리고 안전한 연계 (좌장 : 정성규 교수(서울대학교 통계학과))
		빅데이터 결합을 통한 개인사업자 금융지원 정책 효과 분석 김미루 팀장(한국개발연구원 국제연구팀)
		AI 시대의 조사데이터 통합: 가치 보정의 역할과 가능성 권용현 교수(육군사관학교 수학과)
		안전한 데이터 연계와 활용을 위한 플랫폼 운영모델 제안 박민정 과장(국가데이터처 통계기준과)
		행정자료 기반 주거비지수 작성방안 홍현정 서기관(국가데이터처 물가동향과)
토론 : 박승환 교수(강원대학교 정보통계전공)		
15:45~17:00 다이아몬드홀	세션 3-2	AI 에이전트와 사회조사(좌장 : 강현철 교수(호서대학교 빅데이터시학부))
		대형(언어)모델이 조사연구에 가져오는 새로운 가능성과 위험 강동현 교수(연세대학교 사회학과)
		AI Agent와 사회현상 연구 한경식 교수(한양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학부)
		LLM을 이용한 텍스트 분석 한상원 교수(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토론 : 강정한 교수(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이영구 상무(피엠아이)



▶ 국가통계·데이터발전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는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



▶ 국가통계·데이터발전포럼 주요 인사 기념 촬영
- 가운데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